

마음 다루기 치료하는 기도

사랑과 치유

| 래리 도시 의학박사 | 차혜경 · 장준원 옮김 |

공감과 긴밀한 유대감이 일으키는 치유의 힘에 대해 말합니다(편집자 주).



치유의 주된 목적은 사랑이다(파라셀수스, 1493-1541)

만약 과학자들이 건강을 빠른 속도로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사랑만큼이나 강력한 약품을 만들어 낸다면, 그 사건은 의학의 거대한 약진으로 보도될 것이다. 만약 그 약이 사랑만큼이나 부작용이 적고 저렴하다면, 그 약은 불티나게 팔릴 것이다.

사랑은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이 사실은 과장된 것이 아니다.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 약 10,000명의 남성들에 대한 조사에서 부인이 협조적이고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협심증의 빈도가 50% 감소한다.

신체를 변화시키는 사랑의 힘은 전설적일 만큼 강력하며, 민간풍습과 상식, 매일의 경험 속에 내재되어 있다. 사랑은 영혼을 올리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사랑을 고백할 때 경험하는 얼굴 붉힘과 가슴 두근거림과 같이 신체에 영향을 끼친다. 전체 역사에 걸쳐서 '다정하고 사랑스런 보살핌'은 한결같이 치료의 중요한 요소로서 인식되어왔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데이비드 맥클란드 박사는 '마더 테레사 효과'로 부르는 방식을 통해 신체를 보다 건강하게 만드는 사랑의 힘에 대해 증명했다.

그는 한 그룹의 하버드 대학생들에게 환자를 사랑으로 보살피는 마더 테레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여줬다. 학생들이 영상물을 보기 전과 보고난 후에, 그들의 타액에 포함된 면역글로불린A의 수치를 측정했다. 이것은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성 감염에 대해 활동하는 항체의 일종이다. 많은 수가 테레사 수녀에 대해 '무 종교적이다'라던가, 혹은 위선적이라고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의 면역글로불린A 수치는 현저하게 상승했다.

후에 다른 방식으로 같은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맥클란드는 우선 영상물을 치워버리고 대학원생들에게 두 가지를 떠올려 보라고 요구했다. 그들이 과거에 다른 누군가로부터 깊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던 순간과 그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했던 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한 것이다. 이 실험에서 맥클란드는 자신 스스로에게도 이 기법을 적용했는데, 그는 이를 통해 감기가 쉽게 나았다. 그는 개인적 경험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적 치유에 있어서 사랑의 역할에 대한 홍보대사가 됐다.

어느 날 그는 그의 의학계 동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병원 환경을 바꿀 작은 아이디어를 꿈꾸고 있습니다. 긴장을 완화시키고, 사랑스런 관심을 주고, 모든 것을 제어하고 작동시키려는 끊임없는 욕망으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해줄 그 어떤 것 말입니다. 어떤 의사나 간호사, 사회적 운동가들이 ...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 그들의 건강을 이롭게 해준다는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 자신에게도 좋을 것입니다.”

사랑이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멀리 떨어진 사람 사이에서 공간적인, 어쩌면 시간적인 단절까지 극복하면서 작동할 만큼 강력한 것일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지라도, 그 사랑이 지정학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통합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기도가 효과적이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누군가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동정심, 공감, 사랑의 감정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들이 진정으로 ‘저 너머’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사랑은 특수화된 텔레파시가 아니라, 숭고한 것이다.
사랑은 이런 상호연관성과 정신적 유사성에 있어서 가장 간단하고
일반적인 표현방식으로 텔레파시 법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심리학의 위대한 학자 중 한 사람인 F. W. H 마이어스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서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종종 서로 깊이 사랑하는 감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큰 감명을 받았다.

마이어스는 사랑과 동정과 열정이, 정신이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가능하게 만든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랑은 이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어서 마이어스는 사랑을 자연적인 법칙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랑은 특수화된 텔레파시가 아니라, 숭고한 것이다. 사랑은 이런 상호연관성과 정신적 유사성에 있어서 가장 간단하고 일반적인 표현 방식으로 텔레파시 법칙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기도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정신적 치유자들은 이에 동의한다. 그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치유 능력에 있어서 거리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들 중 대부분은 사랑이야말로 그들이 멀리 떨어져서도 치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치유 시도 중에 치유자들은 보통 사랑으로 고취되고, 배려로 인해서 변모된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감정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어서 그들은 전형적으로 기도를 받는 사람과 ‘하나 되는 경험’을 묘사하고는 한다. 로렌스 레산은 치유에 대한 저서 《영매, 신비주의자 그리고 의사》에서 몇 명의 유명한 치유자들에 대한 관찰결과를 보고했다.

*

*

01. 오직 사랑만이 치유의 불꽃을 피울 수 있다.

사랑의 법칙에 따라 기도하는 것은 신의 의지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다.(아그네스 샌포드)

02. 우리는 반드시 배려해야만 하며, 다른 이들을 깊고 절박하고 전체적이고 즉각적으로 돌보아야 한다.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그들에게 도달해야만 한다.(엠브로즈와 올라 워랄)

03. 만약 이런 이해가 단지 정신적인 것일 뿐이라면, 그것은 공허하고 무익한 일일 것이다. 그 느낌은 마치 치료의 뒤편에서 흘러넘치는 연료와도 같은 것이다.(치료사인 스튜어트 그레이슨)

*

*

많은 치유자들은 기도가 어디론가 ‘도달’해서 치료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다. 이런 믿음과 더불어, 실험실의 실험들, 또는 일상의 일화들로부터 수집된 꽤 많은 양의 증거들은 공감이란 어떤 식으로든 멀리 떨어진 생명체들을 연결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런 증거들은 미생물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상이한 종류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사실은 중요한 것이다.

만약 공감이 정말로 굉장히 다양한 범위의 생물들을 연결한다면, 그것은 단지 인간만의 특이한 습성이라던가, 잘못된 관측 결과가 아니라, 아마도 자연 세계에 내재된 특성일지도 모른다.

공감적인 연결

공감, 열정, 사랑은 생명체 사이에 문자 그대로 공명과 접촉의 끈을

형성하는 듯하다. 다음의 관찰결과들은 공감적 연결이 존재할 때 한 개체가 경험한 감정을, 다른 개체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역시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듀크대학의 초심리학 실험실의 J. B. 린과 사라 피더는 54종류의 ‘동물이 돌아왔던’ 사례를 수집했다. 이 사례들 중 몇 개는 매우 놀라운 것이었는데, 왜냐하면 이 사례들 속의 동물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여길 만한 어떤 근거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사례들은 비둘기에게서 볼 수 있는 귀소사례와는 다른 것이었다.

*

*

01. 암컷 콜리건인 바비는 주인 가족들과 오하이오에서 새로 이사갈 집이 있는 오레곤으로 여행하고 있었다. 가족들은 저번에도 이곳에 와 본 적이 있었지만, 바비는 그랬던 적이 없었다. 여행 중간에 인디애나에서 쉬고 있을 때, 바비는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렸고, 실종됐다. 가족들은 찾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여행을 계속했다. 얼마 후 바비는 오레곤의 새집 현관문 계단 앞에 나타났다. 단지 ‘비슷해 보이는’ 개가 아니었다. 바비는 원래 가지고 있던 반점과 흉터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는 개목걸이를 여전히 차고 있었던 것이다.

02. 휴 브래디는 통신용 비둘기들을 애완동물로 키우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집 정원에서 상처 입은 비둘기를 발견하고는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비둘기를 간호해 주었고, 건강을 회복한 비둘기에게 #167이라고 적혀 있는 꼬리표를 붙여줬다. 다음해 겨울, 휴는 갑자기 병에 걸렸고, 서둘러 360km 떨어진 병원을 찾아가 수술을 받았다. 어느 매섭게 춥고 눈 오는 겨울날 밤, 여전히 병원에 입원한 채로 회복 중이었던 그는 병실 창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휴는 간호사를 불러서 창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다.

*

*

*

*

그러자 비둘기 한 마리가 병실 안으로 날아들더니, 날개를 퍼덕이며 휴의 가슴 위에 내려앉았다. 그는 꼬리표의 숫자를 보고서 이 비둘기가 그가 돌보아줬던 새라는 사실을 즉시 깨달았다. 물론 비둘기가 귀 소본능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167은 집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를 만나기 위해 자신이 한번도 와본 적이 없는 병원까지 찾아온 것이다.

*

*

공감은 생명체 간의 관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기계간의 상호작용에도 명백히 관여한다. 프린스턴대학의 공학예외성 연구실험실의 연구자들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된 실험을 통해 기계적 장치¹⁾에서 발생하는 무작위적 사건에 영향을 끼치는 인간능력에 관해서 연구해왔다.

이 장치는 수열을 생성했는데, 속도는 초당 천 비트였다. 또한 이 장치는 각 200비트마다 한 번씩 이 수열을 검사해 일반적인 교대수열²⁾ 형태를 검사하고 그 횟수를 확인했다. 인간 조작자는 이 장치 앞에 앉아, 화면에 뜨는 수열을 바라보면서 이런 출력 분포를 양의 방향, 또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자신의 의지로서 기계의 출력을 높이거나 또는 낮추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REG 외에도 많은 다른 기계적 장치들이 실험에 사용됐다.

-
- 1) 마이크로 전자공학에서 사용하는 무작위 사건 생성기(Random Event Generator, REG) 같은 것-지은이
 - 2) 교대수열은 0과 1이 반복되는 것으로 0101... 이나 1010... 형태로 나타난다. 이 실험은 인간 조작자가 0101... 이나 1010... 처럼 반복되는 수열을 0000... 이나 1111...과 같이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 옮긴이

REG에 영향을 끼치는 실험은 1년 동안 15쌍의 참가자들에 대해 256,000회의 시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이들의 결과는 91명의 개인 조작자들의 결과와 비교했는데, 이들 개인 조작자들은 같은 장치에 대해서 2,520,000회에 걸친 실험을 수행했었다. 이 같은 비교실험의 결과, 개인으로 참여한 경우나 한 쌍으로 협동했던 경우 모두 REG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모든 경우 장치출력이 순전히 무작위한 상태에서부터 특정한 패턴을 지니는 상태로 조종된 것이다. 최고로 성공적이었던 실험쌍은 감정적으로 그리고 공감적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고 있던 소위 ‘딱 붙어 다니는’ 커플이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 분야에서 수집된 것 중에서 최대의 것이며, 공감과 감정적인 밀접성이 세계 ‘저 밖에’ 실제적인 사건을 만들 수 있는 힘을 발현시킨다는 대단히 인상적인 증거이다. 또한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기도 치유자들의 다음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이기도 하다.

“사랑, 공감, 열정, 배려, 긴밀한 유대감은 치료의 뒤편으로부터 흘러 넘쳐 들어오는 연료와도 같은 것이다.”

프린스턴 연구에서 공감의 효과가 ‘딱 붙어 다니는’ 커플에게만 한정됐던 것은 아니다. 개인 조작자들도 그들이 영향을 주려는 장치와의 감정적인 유대감을 표현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이 장치에 영향을 주려고 노력하는 동안, 그들이 이 장치와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이 실험은 공감적 유대감이 공간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한다. 조작자들이 프린스턴대학 실험실의 기계 앞에 앉아 있던지, 지구 반대편이나 그 사이 어딘가에 앉아 있던지(실제로 이 실험은 국

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수행됐다),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피실험자는 장치와의 공간적 거리는 상관없이 동일한 능력을 발휘했다.

이런 연구들은 공감적 유대감이 시간을 초월한다는 사실 또한 증명한다. 프린스턴의 연구자들은 실험을 변형해 주목할 만한 결과를 얻어냈다. 그들은 피실험자들에게 REG가 작동하기 전에 출력에 영향을 끼쳐줄 것을 요구했다. 연구결과는 장치가 작동하는 동안 그 앞에 앉아서 장치에 영향을 끼치려던 때와 동일했다.

실험자들은 피실험자들에게 이번에는 장치가 작동한 후에 장치에 영향을 끼쳐달라고 요구했다. 즉, 장치가 작동되고, 피실험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것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다는 것이다. 결과는 동일했다. 이것은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원인이 결과 뒤에 존재하다니! 우리는 언제나 과거는 불변하며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실험결과가 프린스턴대학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물리학자 헬무트 슈미트도 유사한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는 프린스턴 실험을 지지하고 있다. 그는 이 실험에서 REG가 작동한 후에 피실험자가 그것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공감은 기도가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일까? ‘도달하기’라는 용어는 서로 떨어져 있는 개인이 근본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다른 모든 이들과는 별개의 존재라는 주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이런 개념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 초심리학계의 저명한 연구자인 스탠리 크리프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른 관점을 취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모든 의식이 기본적으로 집단 의식이라는 것이다. 한 개인의 의식, 주의, 기억 등은 사회적

집단적 상호작용이 없다면, 어떤 개인도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것들과의 일체감을 성취해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집단의식'은 '개인의식'의 근원이 되는 근본적 모체인 것이다.

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집단적 상호작용이 없다면, 어떤 개인도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것들과의 일체감을 성취해낼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집단의식'은 '개인의식'의 근원이 되는 근본적 모체인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동안 자신을 분리된 자아로 정의해 온 나머지, 단일성이 아닌 분리야말로 근본적인 현실이라는 믿음의 최면에 걸린 것처럼 빠져 있었다. 그러나 만약 분리가 아니라 단일성이 근본적인 것이라면, 특정한 정신적 수준에서 볼 때 '도달한다'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 수준에 있어서 어떤 대상이 도달하려는 종착지가 되는 분리된 장소가 절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느끼는 결합의 느낌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이런 결합의 느낌을 만들거나 고안한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원래부터 존재하던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혁신이 아니다. 오히려 기도는 우리가 진정 누구이고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기억해내는 과정이다. 기도는 우리가 특정한 상황에서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희귀한 상태라는 식의 신비감이 기도를 더 멀어지게 한다. 만약 기도가 내포하는 공감과 연결이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는 규칙이라면, 기도를 둘러싼 어떤 거룩한 후광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실은 특정한 정신 수준에 있어서는 어떤 원격치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식수준에서는 사람들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극복되어야 할 어떤 물리적인 거리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치유이기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자신과 타자 간의 공간적인 구분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이며, 다른 사람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자신에게도 유익한 이유일 것이다.

사랑의 역설

소위 뉴에이지의 자잘한 개념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과 관련한 것일 것이다. 환자뿐 아니라, 의식들이 집 한 채도 넘쳐나며, 모두 사랑의 치유에 대한 경이로운 힘을 증언하고 있다. 사랑은 종양을 녹여 없애고, 중독증을 치료하며, 공포감을 추방시키고, 기적을 일으키며, 생명을 변모시킨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듣게 될 내용이다. 만약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모든 공포와 원한과 증오를 놓아버리는 법을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의 건강은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파라셀수수의 격언인 “치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랑이다.”는 종종 “사랑은 치유를 발생시키는 유일한 원인이다”라는 말로 왜곡되고는 한다. 사랑을 둘러싼 열광적인 감격이야말로 뉴에이지의 큰 역설 중 하나가 생겨난 원인이 됐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상당수 환자들이 자신이 건강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

*

약 10년 전, 내 환자 중 한 명이 유방에 종양이 생겨서 방사선을 찍고 유방생검을 받았다. 결과는 유방암이었다. 적지 않게 충격을 받은 그녀는 처음 암환자로 진단된 사람들을 잘 다루는 것으로 이름난 심리상담가에게 도움을 구했다. 이 상담가는 모든 질병이 감정과 영적 결점을 반영한다고 깊이 확신하고 있었다. 내 환자가 처음 방문했을 때, 그 상담가는 병력이나 심리적 기질에 대해 자세히 묻는 절차도 생략한 채, 불쑥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이 암을 갖게 된 데에는 딱 3개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거나, 스스로 잘 알지 못하는 깊이 내재된 어떤 공포를 가지고 있거나, 당신과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깊이 생각한 후, 내 환자는 그 상담자의 발언은 정말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암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녀는 그의 도움을 거부하고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했다. 통상적인 암치료법과 내면에 대한 지속적인 심리적 수련을 받아온 그녀는 1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어떤 질병의 흔적도 가지고 있지 않을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다.

*

*

내가 치유에 있어서 사랑의 역할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위와 같은 사례를 언급한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사랑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는다. 특히 기도에 기반을 둔 치유는 더욱 그렇다. 나는 단지 사랑이 건강과 치유에 대한 어떤 마법적이고 획일적인 원칙으로 숭배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을 뿐이다. 왜냐하면 사랑이 이런 식으로 숭배를 받는 경우, 종종 환자들은 기도에만 몰두하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당신도 결연히 일어나 모든 사랑의 숭배자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을 뜻하느냐고 묻고 싶어질 것이다. 전체론적 의학계에서는 사랑을 단지 무의식적인 배려와 관련이 있는 감정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것은 어느 정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지만, 결국 사랑에 대한 부분적인 묘사일 뿐이다. 예들 들어,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랑이 에로스의 영역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에로스는 무엇보다도 신비롭고 역설적인 것이었다. 융은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적절하게 고전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때, 에로스는 인간한계를 초월하는 신성을 가지고 있는 신이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완전히 이해되거나 표현될 수 없는 존재였다.”

대다수 뉴에이지 신봉자들과는 달리, 그리스인들은 에로스가 좋은 특성 뿐 아니라 나쁜 특성도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융도 같은 생각이었다. 수천 명에 이르는 환자들로부터 일상생활과 꿈속에서 에로스의 행동을 관찰한 결과, 그는 ‘에로스가 그 행동의 영역이 무한히 넓은 하늘에서부터 어두운 지옥의 심연에까지 뻗어 있는 악마로까지... 이해될 수 없는 역설...’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많은 뉴에이지 작품들은 사랑으로부터 복잡성을 제거해 버림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간단한 공식, 또는 실생활에 응용 가능한 어떤 유용한 개념으로 이해하도록 만들어버렸다. 사랑의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성격은 허상으로 여겨지거나 완전히 무시됐다.

구약성경의 욱 이야기는 이런 사랑의 허상적인 측면 그리고 어떻게 개인이 사랑하는 신에 의해 희생될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이다. 욱

의 이야기는 오늘날 영적 결점과 질병을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결백한 사람들에게도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현재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건강에 대한 사랑의 공식이 애통하게도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욱이 처음부터 완벽하고 고결한 인물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런 가혹한 운명을 선고받을 만한 어떤 나쁜 일도 저지르지 않았다.

이런 욱의 완벽성에도 불구하고, 신은 그에게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록 했다. 그의 자식 10명은 살해됐고, 재정적으로 파산했으며, 문둥병에 걸려서 고통에 신음하게 된 것이다. 만약 우리가 ‘신은 사랑이다’라는 말을 믿는다면, 우리는 사랑이 극도로 복잡한 현상이라는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욱의 말처럼 ‘악마’가 활동을 개시한 것이다.

욕의 시대로부터 그리 많은 것이 변하지 않았다. 신앙심이 깊고, 신의 존재를 체득했으며, ‘깨달은’ 사람들 역시 병에 걸린다. 앨런 와츠가 말했던 것처럼 ‘신의 치마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말썽을 일으키는 문제들’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찾고는 한다.

어떤 이들은 환자가 단지 겉으로는 사랑하고, 신뢰하며, 공포로부터 자유로워 보이지만, 저 아래 깊은 곳에서는 환자가 알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한다. 또 어떤 이들은 환자가 전생의 업에 따르는 삶을 살고 있어서 업보를 치르고 있다고 말한다. 다른 이들은 그 환자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런 질병을 ‘선택했다’는 주장도 펼친다.

이런 해석이 진실과 대면하기보다는 기존의 ‘건강-사랑’ 이론을 보

호하기 위한 필사적이고 주먹구구식이라는 느낌을 받지 않는가? 확실히 이 이론은 결함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사랑은 건강, 장수, 그 밖의 어떤 것에 대한 보증 수표가 아니라, 복합적인 개념인 동시에 심원한 신비이기 때문이다.

치유에 대한 사랑의 역할에 대해 우리가 정말로 아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의 역설에 대한 부적절한 편견을 배재하고서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사랑, 열정, 배려, 공감에 치유의 발생을 촉진하며, 이런 치유를 발생시키는 힘이 원거리에서 그리고 시간의 한계를 초월해 작동한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이 질병과 양립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이해한다. 이것은 예수가 “원수를 갚지 마라”라고 말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사랑은 치유에 있어서 웅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존재하는 사랑은 현실 세계를 이루는 살아 있는 조직이자 우리 모두를 통합시키는 결속력이다. (끝) 

- 이 글은 '과학이 증명한 놀라운 힘, 치료하는 기도'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전제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래리 도시 | 미국 텍사스의 내과 의사 래리 도시는 과학의 세계에 한쪽 발을 깊숙이 담고 한쪽 발은 영혼 속에 빠뜨린 사람이다. 그는 텍사스주립대와 사우스웨스턴 의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베트남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고, 달라스시립병원 원장을 지냈다. 〈질병을 넘어서〉, 〈의학의 재발견〉, 〈기도는 좋은 약입니다〉, 〈영혼의 회복〉 등 아홉 권의 책과 수많은 칼럼의 주인공이기도 한 래리 도시는 과학적 데이터와 영혼을 같은 방에서 춤추게 하는 '영혼의 시인'이라고 불린다. 그는 오프라쇼 등 대중매체뿐 아니라, 세계 최고라 불리는 하버드, 존스홉킨스 의학대학원부터 코넬,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 워싱턴, 텍사스, 플로리다, 미네소타 의학대학원 등에서 강연했다. 수많은 의료진과 환자들은 그의 통찰에 고개를 끄덕였으며,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함께하기 위해 몰려들고

있다.

역자 | **차혜경** | 그늘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싶은 참간호사이자, 행복한 간호사를 만드는 선생님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다. 중앙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했다. 병원,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며 같은 대학에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 학위를 받았다. 옮긴 책으로 『예방접종 어떻게 믿습니까?』가 있다.

역자 | **장준원** | 서강대학교 공과대학원 컴퓨터공학과에서 음성인식을 전공하였으며, 디지털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재직한 바 있다. 현재 SBS 번역대상 최종 심사기관으로 위촉된 (주)엔터스코리아 전속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추천도서 마음에 닿은 책 Good Book

치료하는 기도 - 과학이 증명한 놀라운 힘

래리 도시 저 | 차혜경, 장준원 역 | 바람 | 18,000원



“과학으로 기도를 증명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수백 개 이상의 실제 실험사를 바탕으로 풀어나가는 책이다. 저자는 각종 미생물이나, 암세포, 식물, 나방, 쥐, 병아리, 사람을 대상으로 한 과학적 연구를 분석해가며, 기도가 의학적으로 풀리지 않는 수많은 기적의 원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나간다. 특히 대표적인 기적 사례 불리는 ‘자연적으로 사라진 암’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기도가 종교의 다름과 유무에 관계없이 의학적으로 뛰어난 도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로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 책은 미국 의학계에도 큰 변화를 몰고 왔다. 이 책이 미국에서 출간되기 전, 기도치료에 대한 의학대학원 코스는 단 3개뿐이었지만, 현재는 80개 의학대학원에서 관련 과목이 개설됐으며, 이 중 많은 대학이 이 책을 교재로 삼고 있다.